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법안 발의

‘광업공단’ 법정자본금 3兆

광물공사 부채, 정부 지원 필요
자본금·적립금 2배 사채발행 가능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더라도 정부의 추가 출자가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이 지난 13일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합쳐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발의했다.

의원 발의 법안이지만 정부 협의를 거쳐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 주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 원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금 규

모는 세부방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자본금을 3조원으로 한 이유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규모가 워낙 커 두 기관을 통합하더라도 정부의 추가 자본금 출자가 필요할 수 있어서다.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은 납입자본금의 두 배까지 가능한데 광물자원공사는 이미 발행 규모가 한도에 육박했다.

두 기관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광물자원공사는 자산 4조 1500억원에 부채 5조 4300억원, 광해관리공단은 자산 1조 6000억원에 부채 3200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광업공단의 자본금을 3조원으로 한 것에 대해 “추가 출자가 가능한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며 출자 여부나 규모는 예산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광업공단으로 통합해도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이전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안은 광업공단의 사업 범위를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하던 사업으로 하되 광물자원공사의 광물자원 탐사와 개발, 광산 직접경영, 해외법인 출자에 관한 사업은 삭제했다.

해외자원 직접개발에서 손 댄다는 방침에 따라 해외투자자산의 관리와 처분, 민간의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또 남북 경협에 대비한 남북 간 광물자원개발과 광물자원 산업 분야의 협력 사업을 신설했다.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산업부에 해외자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산을 처분하되 해외 자산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도록 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스마트팜 모습.

/농진청

농진청, 2세대 스마트팜 개발

AI가 영상으로 농사짓는 시대 연다

농촌진흥청은 4차산업혁명 기술 융합과 혁신으로 우리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스마트 농업 시대를 열어갈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팜은 자동화 설비와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농사 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과학 기반의 농업 방식을 말한다. 농진청은 보다 고도화된 스마트팜 기술로 농업을 과학화하고 농업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3단계 기술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세대 스마트팜을 도입한 많은 농가에서는 영농의 편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든 농사 환경을 농업인이 직접 설정하고 조작해야 해 농사에 대한 지식은 물론,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ICT 역량도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경험이 적은 젊은 농업인이나 귀농인, 농사 지식은 있지만 ICT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은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 기술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농진청이 개발한 한국형 스마

트팜 2세대 기술은 인공지능(AI)이 데이터와 영상 정보로 생육을 진단하며 의사결정을 돕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작물의 성장과 생육, 질병 상태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지원 플랫폼 ‘팜보이스’와 재배 전 과정에서 적합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은 농사 경험이 적은 젊은 청년이나 ICT에 익숙한 고령 농업인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세대 한국형 스마트팜은 현재 토마토를 대상으로 기술을 확립해 검증하고 있다.

농진청은 앞으로 여러 작목에 적용해 국내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우리 농업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혁신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철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더 고도화된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바꾸고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기술 개발과 보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로컬푸드 공급

농식품부, 14개 공공기관 등 MOU
지역 중소고령농·여성농 판로 확보

앞으로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로컬푸드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빛가람 혁신도시 소재 14개 공공기관, 전라남도, 나주시는 14일 한전KDN(주) 본사에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구내식당 등을 중심으로 지역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중소농 소득 증대, 가공 등 지역 일자리 창출, 유통비용 및 푸드마일리지 감축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에게는 누가 언제 생산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얼굴있는 농산물’이 공급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지 못했던 지역의 중소 고령농, 여성농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간 농식품부와 전남도, 나주시는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급식·유통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나주시 중소농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14개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호응해 지난 9월부터 10개 기관이 로컬푸드를 공급받고 있으며 4개 기관은 현재 나주시와 협의 중이다.

이번 협약은 이 같은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상호 역할을 분담했다.

우선 공공기관은 구내식당 식재료 뿐만 아니라 행사 기념품 및 부식 서비스, 명절 선물 등에 로컬푸드를 적극 활용한다.

농식품부는 로컬푸드 공급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고, 전남도와 나주시는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나주시는 로컬푸드 생산·가공 체험 등 상호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빛가람 혁신도시 로컬푸드 활용 공공급식 선도모델을 타 혁신도시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공공급식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군·구와 ‘먹거리 계획 협약(가칭)’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2019년부터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aT 농수산 창업 해커톤대회 참가자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민의 참여를 통한 농수산물분야 일자리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농수산물분야 창업 해커톤 대회’ 참가자를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참가자들이 팀을 이뤄 일정한 시간 내에 아이디어의 기획부터 완성까지 결과물을 완성하는 혁신기법을 의미한다.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공모주제는 ▲aT사업과 연계한 혁신 신기술 분야 ▲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 및 활용 분야 등 농수산물산업(화훼포함) 창업 분야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상위 5개 팀은 12월 19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해커톤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작은 포상을 포함, aT 창업지원사업 연계 및 오픈형 사내벤처 운영을 통해 창업 일자리 창출의 실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병호 aT 사장은 “이번 해커톤 대회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수산물분야 창업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접수는 3~5명의 팀을 구성해 ‘aT창업해커톤 운영사무국’의 신청 양식에 따라 제출하면 되며, 공모전과 관계된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를 참고하거나 공모전 운영사무국(02-780-49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최신웅 기자

신보 북카페 ‘휴 앤 북스’ 오픈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3일 대구 본점에서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 지역주민, 신보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북카페 ‘휴 & Books(휴 앤 북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휴 앤 북스는 ‘누구나 책을 보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신보 본점 1층에 설치됐다. 경제, 사회, 과학, 예술, 소설, 아동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간과 임직원이 기증한 1000여권의 도서를 비치했다.

앞으로 컴퓨터, DVD 플레이어, 오디오 시설, 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해 지역주민의 쉼터와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희주 기자 hj89@



14일 오전 10시 30분 캠프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국유지 개발사업장 통합공정회의 참석자들이 ‘국유지 개발업무 청렴·인권 선언’ 의지를 다지고 있다. /캠코

캠코, 국유지 개발업무 청렴·인권 선언

근로자 등 부당행위 대응장치 마련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4일 오전 서울지역본부에서 ‘2018년 하반기 국유지 개발사업장 통합공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통합공정회의는 캠코가 위탁개발 중인 수도권 소재 국유지 개발사업 현장의 안전점검 결과와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청렴·인권 선언을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하고 인권 경영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국유지 개발업무 청렴 선언’을 통해 부당행위 근절과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업무 수행을 다짐했다. ‘국유지 개발업무 인권 선언’을 통해 국유지 개발사업장 건설관계자의 인권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 의지도 다졌다.

캠코는 국유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수도권 내의 모든 건설현장에 ‘청렴·인권 신고함’을 설치해 협력업체, 건설근로자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김희주 기자 hj89@